


|   |              |  |   |  |  |
|---|--------------|--|---|--|--|
|  |              | <b>보 도 자 료</b>   |   | 2025년<br>수도권매립지 종료<br>인천광역시  |  |
|   |              | 배포일자   | 2021년 5월 3일(월)<br>총 5매  |  |  |
| 담당<br>부서  | 시민정책<br>담당관실 | 담당자  | • 시민참여팀장      장일진 ☎440-2416<br>• 담당자                조영희 ☎440-2418 |  |  |
| <b>사진</b>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b>참고자료</b>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b>보 도 시 점</b>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시민청원#41〉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인천시, 논현동 580-3번지 복합문화시설 등 건립 요청 깊이 공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일 ‘논현동 580-3번지 복합문화시설 등 건립’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고 밝혔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논현동 580-3번지 학교 시설 용지 지정 해제에 따라 학교가 신설될 수 없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달라는 주민 여러분의 요청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LH에서 추진 중인 용역 과정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동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민청원은 2002년 도시계획 당시 학교부지였다가 용도가 해제된 논현동 580-3번지에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하면서 청원이 이어졌고, 30일간 3,074명이 공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 남동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면담 이후 진행사항으로 올해 1월, 남동구와 LH는 장기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내용 이행을 위해 지난 3월, LH는 ‘인천 논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부시장은 “용역에는 논현동 580-3번지 일부를 활용한 생활SOC시설 등에 대한 기본구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이라며 “해당 부지를 기존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 <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답변원고

##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 원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입니다.

‘논현동 580-3번지 복합문화시설 등 건립 요청’ 청원에 공감해주신  
3,074명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지구인 논현2지구는  
2002년 착공 이후 금년 12월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논현·도림·서창 등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대통합형 문화체육센터와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의 조성으로  
인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현2지구 내에 위치한 논현동 580-3번지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였으나, 2017년 LH와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학교시설 용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계셨을 주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며,  
학교가 신설될 수 없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해달라는  
주민 여러분의 요청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 된 남동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과의 주민 면담 이후  
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남동구와 LH는 장기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3월, LH에서는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인천 논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에는 논현동 580-3번지 일부를 활용한  
생활SOC시설 등에 대한 기본구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기존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인천시는 LH에서 추진 중인 용역 과정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동구와 계속해서 협의해 갈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이 우리 아이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큰 관심을 갖고 제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